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골1:3)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935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조순진

'99 청지기훈련 새 언약 새 일꾼 새 출발!

이번 주 13-14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김성관 위임목사 '씨뿌리는 자' 등 4개의 연속강의

그동안 계속 소개되었던 99년 청지기 훈련이 이번 주 13일과 14일 저녁 7시에 본당에서 거행된다. 모든 제직(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과 각 부서 봉사자(교구일꾼,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각 전도의 회원, 청년, 대학생부 임원인 등)들을 포함, 교회직원, 각 위원회 일꾼 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청지기훈련은 실제로는 거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초 최대의 전 교회적 훈련 과정이다.

모든 성도들이 99년도 한해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1월 13일(수)	1월 14일(목)
저녁 7:00-8:00	전제강의 I '씨뿌리는 자' (마 13:3)	전제강의 III '죄인을 주께로' (마 9:17-20)
저녁 8:00-8:20	휴식(간식)	휴식(간식)
저녁 8:20-9:10	전제강의 II '사람을 낚는 어부' (마 4:19)	전제강의 IV '비늘이 벗겨짐' (행 9:18)

교정전도회

춘천소년원 겨울성경학교
간식 등 기증할 성도는 오늘 중으로

교정전도회는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춘천소년원생 약 350-400여명을 대상으로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집회 인도: 조철수 목사, 박양덕 전도회). 교정전도회에서는 금번 수련회에 필요한 자원봉사 교사들을 모집하기 위해 대학부에 일꾼 청원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할 일꾼들이 다수 모집된 상황이다. 한편, 교정전도회는 간식 및 기타 후원 등으로 금번 사역에 동참할 성도들은 오늘 중으로 교정전도회(구내전화 207)로 연락하여 기증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99년도 신년해례식 교역자 및 장로들의 신년해례식이 지난 1월 2부 신년예배 후 만나홀에서 있었다. 이날 모인 총현의 가족들은 새해 인사말을 나누면서 99년 한해 동안도 복음 안에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모두 참석하여 함께 부르는 찬송과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듣고 순종을 결단하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성관 위임목사가 담담하게 될 금번 청지기훈련 강의는 '씨뿌리는 자' (마 13:3), '사람을 낚는 어부' (마 4:19), '죄인을 주께로' (마 9:17-20), 그리고 '비늘이 벗겨짐' (행 9:18)의 연속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신년 공동의회 열려

김방진·김순용 장로 원로 추대

지난 주일(3일) 찬양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열렸다. 금번 공동의회는 교회회 개정안과 1998년도 결산, 그리고 1999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와 통과를 위한 것이었는데 모든 과정이 순리에 따라 잘 진행되었다. 한편, 공동의회에서는 김방진 장로와 김순용 장로에 대한 원로장로 추대 가결 및 추대식도 아울러 진행되었다.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온 생을 바친 두 분의 충성스러운 섬김을 기리는 시간만 사뭇 엄숙하였다.

99년도 시무식

1월 5일(화)

99년도 시무식이 지난 5일(화) 아침 8시 20분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있었다. 전교역자와 전직원들이 참석하여 가운데 진행된 시무식은 예배와 상견례, 그리고 다과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한해 동안 총현교회는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수고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다.

영어교육부

초등부에서 사랑 나눔행사

영어교육부 초등학생 부서에서는 1999년도를 '선교 꿈꾸기'의 해로 정하고, 그 첫 행사로 지난 1월 16일(토)에는 장 애인 사설인 '천사의 집'을 방문할 계

'99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 각 부서별로 1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99년도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된다.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금번 겨울성경학

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성숙과 성장의 변화'의 은혜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은 물론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을 기대한다.

부서명	기 간	장 소	주 제	주제성구	주제성구	강 사
영아부	3. 1(월) - 3. 2(화)	선104호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출 36:8	144장	한영준 전도사
유아부	3. 1(월) - 3. 2(화)	교212호	예수님과 함께	요3:16	411장	김정자 전도사
유치부	3. 1(월) - 3. 2(화)	교205호	성경의 이리언	사1:3	382장	정현희 전도사
유년부	1. 25(월) - 1. 26(화)	교314호 외	예수님을 전하자	막16:15	277장	김영기 전도사
초등부	1. 25(월) - 1. 26(화)	교307호 외	하나님의 말씀을 사행하자	사18	235장	송원희 전도사
소년부	1. 25(월) - 1. 26(화)	교407호	나는 배우고 확산한 일에 거하라	딤후5:14	236장	한승일 전도사
중등1부	1. 25(월) - 1. 27(수)	충현기도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예10:2	350장	염현일 전도사
중등2부	2. 22(월) - 2. 24(수)	충현기도원	예수님의 새 피조물	고후 5:17	210장	장갑신 목사
중등3부	2. 22(월) - 2. 24(수)	충현기도원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골1:12	456장	권상현 목사
고등부	2. 24(수) - 2. 26(금)	충현기도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막19:5	404장	조재현 목사
대학부	2. 20(화) - 2. 5(금)	충현기도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2:11	179장	김동하 목사
청년1부	1. 16(토) - 1. 18(월)	충현교회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입은 청년나무	골 2:6-7	399장	이승학 목사
청년2부	2. 26(월) - 2. 27(화)	충현기도원	사랑하며 섬기는 청년	고전13:13	404장	전형준 목사
장년1부	2. 20(토) - 2. 21(주일)	충현교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청년	딤후2:11-12	399장	박형용 목사
신장부	2. 6(토) - 2. 7(주일)	교201호	부부와 가정생활	딤후2:11-12	399장	조철수 목사
사별부	3. 1(월)	교107호	예수께로 가는 길	요15:10	300장	김동욱 목사
애도부	2. 20(수) - 2. 27(토)	교109호	만민위에 세움	마7:24	379장	박민기 전도사
영아교부	3. 1(월)	복직전 재향	Becoming like christ	고전3:1-3	543장	노동현 목사
						김영주 전도사
						이후환 전도사

획이다. 한편 영어교육부 초등부는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복직관 가나홀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 의사소통이 있는 '선교 꿈꾸기' 등은 누구라도 환영하고 있다.

동계 농어촌 전도 11교구, 영월 북상교회로

11교구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강원도 영월군 북상리에 있는 북상교회로 동계 농어촌 전도를 떠난다. 12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11교구 전도팀은 금번 기회를 통해 해당지역의 복음과 현황을 파악하고 복음 뿌리를 위해 힘쓰는 현지 교회를 적극 섬길 예정이다.

핸드벨라이어

창단10주년 기념 가족음악회

1월 16일(토) 오후 4시 갈릴리홀

핸드벨라이어는 창단 10주년을 맞아 핸드벨 가족 및 모든 관심자들을 초대 한 자리에서 가족음악회를 연다. '주 음성 외에는', '거룩한 성' 및 핸드벨 창단 시부터 지금까지 함께온 포밍어(Four Ringer)의 찬양곡들을 연주할 금번 가족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남녀전도의 98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전도위원회는 98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기간: 1999. 1. 10 - 1. 31

시간: 매주일 오전 10:30-12:30

오후 15:00-16:30

장소: 선교관 4층 전도위원회실

준비서류: 금년납부부, 원장,

회계장세신사2장(98. 7. 1-12, 31),

통장, 증빙서

안내합니다

총연소성장악금

도서장학회는 성경이 말하는 장학정신을 살려 천국일꾼을 선발 양육기 위해, 1999년도 전반기 소식장 학생 모집 및 장학금 지급을 전년도 보다 더욱 발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생으로 지원하는 학생이나 추천하는 기관들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정직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모든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9년도 전반기 장학생 지원 및 추천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추천총현을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창인 목사

하나님의 심판

(이사야 34:1-15)

“하나님은 인간이 죄값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은 물론이고 땅에서도 누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칼을 뽑으십니다.”

이사야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의 치명적인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에돔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야곱에 대한 예서의 전형적인 적개심을 품은 앗수르와 바벨론도 포함한 지명입니다. 앗수르 군대와 바벨론 군대가 여러 나라들을 황폐케 하면서 그로 인해 교만해졌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심판은 민족들간의 싸움에서 성취되며, 또한 영원한 파멸의 날에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심판되는 일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1. 세계가 심판을 당합니다

“열국이어 ... 민족들이여 ...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 만군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 (1-2절)

본문에는 모든 대상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할 때에 벌죄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다.

(1) 하나님께서 세계를 징벌하시는 이유는 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원망한 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도리어 업신여긴 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죄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고 조심해야 하겠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방종한 생활을 하나님 심판을 당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 벌한 죄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였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평행한 죄입니다. 여섯째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의뢰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 가고, 마귀를 찾아 가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2)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진 바 되며 그 사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 돌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성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성의 최잔함이 또도나루 일이 마름 같고 무릇과나루 일이 마름 같으리라” (3-4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의 정경은 너무 끔찍합니다. “살육”이란 무릇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례를 하지 못한 시체가 세상을 덮으니 며칠을

지나지 않아 썩는 냄새가 풍기고 시체에서 흐르는 피로 만리만이 산이 녹아 내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태풍에 섰고일이 떨어지듯 우수수 떨어져 버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돌돌 말려 버리듯 멸망되겠다고 합니다.

2. 에돔이 심판을 당할 것을 예언 하셨습니다

(1)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입니다. 에돔은 영토가 그리 넓지는 않으나 땅이 기름지고 초장이 좋아서 양이나 소를 치는 목축업이 번성하였고 곡식도 잘 자랐습니다. 또한 중추에 연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 중심지로서 동서양을 오가는 배가 에돔에 꼭 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수도인 보스라는 세계의 무역항이었습니

다. 이 나라에는 지식인도 많았습니다. 대만의 철학이라고 하면 고대 세계의 최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에돔은 한 면은 바다이고 다른 세 면은 바위산이 병풍을 두른 듯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군이 쳐들어 올 수가 없는 자연요새입니다. 거기에서 훈련된 잘마는 강한 군대가 국경을 지키었다. 이리하여 에돔은 당시에 최강의 나라라고 뽐낼 수가 있었습니다.

(2) 에돔이 심판을 당할 죄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만의 죄입니다. 에돔은 교만한 만도 합니다. 무식한 사람이라도 돈만 많으면 그것으로 교만한 듯이 되어도 자식이 많은 사람은 그들을 내어주고 교만하고 돈이나 자식이 없어도 거슬만 있으면 그들을 내어주고 교만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있어도 교만을 교만해지고 심지어는 한 가지도 없어도 거만한 사람까지 있는데 에돔이야말로 교만하고도 남을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교만은 사람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업신여긴 정도였습니다.

둘째로, 잔인한 죄입니다. 에돔은 인정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치고 인정이 있는 자가 없습니다. 교만한 삶은 남의 사물을 도둑니다. 유다는 야곱의 후손이니가 동생 나라이지만, 그런데 강대국 바벨론이 동생 나라인 유다를 향해 채 내려올 때에 강한 에돔은 동생 나라는 당연히 도와줘야 했으나 구경만 하다가 심지어는 피난하러 도망가는 사람들을 바벨론에게 넘겨 주다가 했습니다. 에돔이 행한 일은 너무나 잔인하고 인성미가 없었습니다.

(3) 에돔이 심판받게 될 모습이 얼마나 비참

합니까

첫째, 여호와와의 칼에 인생과 금수가 살육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칼이 하늘에서 속하게 마셨은즉 바다 이것이 에돔 위에 내려비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리시 그를 삼킬만 것이라 여호와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기름 기름에 유맥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아에서 피를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시라니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유맥하리라” (5-7절) 바벨론이 유다를 치고 약탈해 간 후에 불과 4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보나기 에돔에는 유다보다 온갖 보석이 다 없습니다. “아하, 우리가 유다만 먹을 수는 없지, 에돔도 먹어야 되겠다.”

이리하여 4년 후에 바벨론의 군대가 에돔을 치게 되었습니다. 에돔은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위치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만만치 않음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에돔을 쉽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약이 바작 출라자 에돔을 정벌하는 날에 대한 히 공적한 상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던 바벨론이 에돔을 정벌하는 날의 정황이 얼마나 비참하였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정벌할 때에는 백성 중에는 부자와 재력이 높은 사람만 잡아 가고 가난한 백성은 모두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에돔을 정벌할 때에는 남근노소를 가지고 오고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까지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에돔 민족은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둘째, 에돔은 유혈만이 될 것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경이 되고 그 티름은 유혈이 되고 그 땅은 불발의 역경이 되니 닢에 밟아 밟아내 깨지 않고 그 연기가 풀림같이 피로써 지며 그새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 없게 할지”(9-10절) 에돔의 산악지대에는 화산이 많이 있는데, 화산기는 이것을 이용하여 에돔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화산의 불 수 없는 불과 끓임같이 피어오르는 연기는 모든 것의 끝단을 암시하는 증거였으며 이사야는 이 지점에서 에돔 땅과 사탄의 세상이 최종적으로 황폐케 될 것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에돔은 황폐하여 짐승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양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닐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배부신 것인즉 그들이 죽기를 이르러 할지 귀인들이 무로 되고 나무도 없었고 그 모든 백병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건조한 성에는 엉퀴와 새들

이 자라서 사람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하고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음베틀이 거기 거역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무영이 거기 깃들이고 양을 낳아 까서 그 들에 오으며 송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11-15절)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배부신 것인즉” 하나님께서 막치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측정하여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돔은 높은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며 난공불락의 궁궐들과 집들도 팔아처럼 될 것입니다. 건조한 성에는 엉퀴와 여새가 자랄 것이며 그것을 베지 않는 사람이 없어져 온갖 짐승들과 새들의 거처와 굴이 될 것입니다.

(4) 에돔의 심판을 예언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에돔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한 때는 에돔이 패망하기 120년 전의 일입니다. 에돔이 한창 잘살 때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보내겠다고 선언하고 오면 기한을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새삼은 홍수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심판을 선언하고 대일 당 삼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전에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 동안 회개하면 용서하여 심판을 거두시고 더 좋은 복으로 배나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선언하신 대로 처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죄가 있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런데 계속 거지같이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언제 배를 맞을지 모릅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값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대만후 3:9).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복은 물론이고 땅에서도 누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칼을 뽑으십니다. 하나님께 칼을 뽑으시니 하나님과 싸워 이길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칼을 피하여 숨을 곳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돔처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 감사하라고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몸만 지고 하나님께 건강을 주시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해라 합니다. 지식과 권세를 받았으면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고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품 안에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



김성록 목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46)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귀기울여야 할 십자가상의 외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고난의 십자가가 은혜의 유일한 통로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귀하게 여기며, 특히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귀히 여겨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예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예수님을 버리신 하나님!

“제 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마 27:46). 구약에서 자주 예언된 바 ‘고난 받는 종’의 실체가 드러나는 이 예수님의 외침의 의미를 누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통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다니! 예수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완전한 사랑과 순종의 정점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진경한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은 이미 시편 22편 1절에서 고백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시편 22편의 것은 일차적으로 다윗의 외침이지만 그 외침의 메아리는 예수님의 외침처럼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사람들은 육신과 영혼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직 분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몇몇 중요한 사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침 속에서 고통을 넘어서게 하는 진정한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 우리를 파멸시킬만한 시험과 역경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절망적인 상황의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도가 끝나지 않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려움수록 더욱더

옳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심각한 고난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육기 13장 15절에 따르면 육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래 뜻은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입니다. 육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가장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

울무엇었습니다.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압박강가의 아픔을 기억하십니까? 아픔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평대신 침묵의 기다림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 대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하심 앞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태어나신 곳 벳레헨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고히 사람을 죽이는 사악한 무리들에 대해서도 소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힘없고 순수한 모습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확실한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으셨나 무슨 말입니까?’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지 모르겠습니다. 만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통의 외침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과 같은 평화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 이루었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서 믿으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수많은 슬픔과 고난, 그리고 역경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떨쳐 버리고 고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의 응답을 얻으십시오. 이 모든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의 길을 따라가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떨쳐 버리고 고통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의 응답을 얻으십시오. 이 모든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십자가로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의 길을 따라 가십시오.

나뉘어 있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세상을 향해 손을 벌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오고 상황이 곤란해지면 곧 잊어버립니다. 가장 절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보다가 사람을 찾으며 세상에 도움을 손길을 펴니다. 아님니다. 이루어야 어려움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처절한 외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천사들조차도 도와 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송하던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깨어 있느라 부활을 받은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도가 끝나지던 그 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그리고 친구들 중 한 사람도 예수님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고 일을 열지 아니 하옵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이니라”(시 39:9).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는 대신 침묵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주권자인 하나님의 참 뜻을 다 시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 영혼의 지극히 깊은 곳에서 드러나는 맑은 기락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역경은 믿음의 시험

예수님은 진실로 견고한 믿음을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견고한 믿음이야말로 역경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역경이 들이닥칠 때에 더 이상 이 믿음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역경은 견고한 믿음의 시험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선교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

이 유 주(집사, 수단의료선교팀)

지속적인 의료선교 통해
의료봉사지역의 아픔이기에 복음 전파되길

12월 22일 오전 6시경 교회에 도착해 김성관 목사님의 기도 후 출발, 현지 시각으로 23일 오전 7시 45분 낮선 땅 아프리카 수단에 도착했다. 입국 후 수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의료봉사지역의 아픔이기에 복음 전파되길

가기 위해서는 통령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수단에서는 모든 일이 느리게 진행된다. 특히 이슬람 라마단 금식기간이라 근무시간마저 단축되어서 우리의 계획된 현지 출발일이 늦어졌다.

12월 24일 신자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사로 지어진 그 지역 교회에서 전례를 시작했는데 비교적 많은 환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를 수단

으로 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악을 지었다. 영국 식민지였던 곳이라 영어가 통하리라 생각했는데 환자들은 대부분 아랍어와 현지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복약(服藥) 지도에 어려움이 많았다. 마침 이집트 이주교 선교사님의 아들인 이집트 현지 전도사님이 크리스마스 방학으로 이집트에 와 있어 우리와 합류하여 아랍어로 그들에게 약 복용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었으니 작은 것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다. 전기가 없는 곳이라 발전기를 돌려 전기 불을 밝히기만 한 환자들 진료했는데 그곳 신도들이 약을 받은 후 자정예배를 하기 위해 마다에 앉아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의 깊은 감동들이 일었다.

12월 25일 오전에 야 예수 단생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우리 집회를 시작했다. 전례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환자들은 끝없이 물러들어 오도록 마음을 조급했다. 오후에 전례를 억지로 끝내고 숙소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약을 받지 못한 몇몇 교인들이 우리를 도와 주던 그 형제들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와 짐을 싸면서서 최

선을 다해 악을 지어 주었다. 아쉬운 마음이 주어졌다.

12월 26일은 김영대 선교사님의 성경학교를 나온 현지인 모세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자발 아올리아(카르툼에서 1시간 거리) 지역의 교회에서 의료선교를 했다. 전날 미리 나눠 준 변호표를 가지고 온 환자들 진료했는데 우리는 밤 11시 15분 비행기를 타야 했기에 오전 진료밖에 할 수 없었다. 아쉬운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떠나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으나 하나님의 신하인 성령하심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의사, 간호사, 약사가 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그곳에 보내시어 의료 선교하게 하시니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1세기 전 이 땅에 신교사들을 보내시어 그들의 복음 전파와 교육, 의료 선교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셨음을 생각해 볼 때 지금도 복음 이방 신과 기어, 질병으로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환자들 그곳에 보내시어 선교하게 하시어 그들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사랑

정전교 집사 가정 탐방

수혜의 아픔 이겨내게 한
성도들의 사랑

지난해 여름. 8월 6일 새벽이었다. 쏟아붓는 폭우로 인해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중랑천이 넘었다. 이때 개천 상류에 있던 방죽동 지역 2천여 세대는 고수관에 온갖 쓰레기와 흙탕물에 뒤범벅되어 잠겨버렸다. 그리고 작은 빌라 저층의 정전교 집사(장남부 교사)의 집도 완전히 잠겼다. 어찌구무없는 고통이 온 식간에 밀어닥쳤던 것이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다. 정 집사의 가정은 이 힘겨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 왔을까?

— 최근 어떤 마음가짐 속에서 교회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정 집사: 수혜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구요, 일단 원로목사님의 확고하신 믿음을 중심의 말씀과 위임목사님의 복음 선포가 저에게는 너무나 적절하여서 대단히 만족하면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수 등에서 좋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여름에 있던 수해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 집사: 그때를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감사가 갑니다. 사실 우리 가족은 모두 잠들어 있던 새벽시간에 일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옆집 사람들이 휴가를 갔다가 바로 홍수가 들이치는 그 시간 직전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물이 들이치는 소리를 듣고서 우리 가족을 깨웠던 겁니다. 만일 그분들이 깨워 주지 않았었다면 도무지 빠져나갈 길 없이 완전히 물에 잠길 뻔했던 거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을 빠져나와 옥상에 앉았는데, 일에서 완수 463장 '현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귀하기 시작했나요?

정 집사: 일단 저는 우리 집도 우리 정전교 집사 우리 교구에 다른 집들도 물

에 잠긴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우리 교구 상조집회를 맡고 있었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위임목사님께서 교구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큰 격려를 받았고, 또 교회와 교우들로부터 여러 가지 큰 도움을 받아서 잘 극복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가계도들은 전에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인데, 어떤 낱사님도 아들이 유학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남겨 주신 것들입니다. 참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 집사: 저는 지금 이동식 개인기도실을 제작해서 여러 교회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사대가 시대이니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풀려나가는 것과 무엇보다도 저와 우리 가족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장막 옮기는 문제 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둘러본 집 구석구석에는 아직 벽지가 뜯겨진 채 그대로였지만, 정 집사 부부의 얼굴에는 예수가 영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충현복지관은요...



충현복지관의 하루는 훈련생들의 요란한 아침 제소 소리와 함께 아동들의 울음·찬양의 울림으로 매우 분주하고 활기차게 시작된다.

복지관은 예수님의 귀하심 사람 안에서 장애인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곳으로, 0세부터 35세까지의 정신장애 및 자폐증 아동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동의 경우 0세에서 15세의 발달 장애 아동

들에게 조기 특수교육(인지·언어·미술·체육·음악·지도 등) 및 언어 치료 등을 실시하여 이들이 가정이나 학교에 잘 적응하고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하여 살아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약 90여명에 이르는 성인 정신지체인들이 모여 각각 능력별로 팀을 구성하여 그에 맞는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고 있다.

IMF를 맞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시기라 훈련생들이 취업하기는 더욱 힘들지만 훈련생들은 약 30여명의 훈련생들이 공공 근로사업장과 일반 공장에 취업되었다. 정도가 심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정신지체인들의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생산하거나 외부 하청 작업을 통해 노동의 기회를 경험하고 임금을 받으며 직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전에서 지원하여 집을 마련, 교사 1명과 장애인 4명이 한 가정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Group-Home) 프로그램을 통해 가사 실습, 금전관리, 여행·동사무사와 같은 공공시설 이용 등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훈련을 받으며 복지관, 혹은 각자의 직장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금년 9월부터는 정신 장애를 동반한 정신지체인의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시작할 예정이며, 복지관 중추 활동 후 마련되는 장애인 전용 목욕장은 일반 대중 목욕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신지체인들이나 중증장애의 사람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보다 나은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봉사자를 청소년 정신지체인 가정으로 파견하여 학습 지도 및 여가 활동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한 청소년과 청소년 정신지체인이 함께 어울려 진행되는 캠프, 학교에서 봉사 명령을 받은 일반 초·고생 학생 봉사 프로그램, 이용인 부모님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음 캠프, 노래 교실, 발 건강 관리 등 다양한 취미 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복지관의 다양한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전화 상담(☎ 562-0548)을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충현복지관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탕으로 정신지체인과 그 가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9년에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충현복지관)

동서울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찬송 경연대회와 성경고사대회에서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월 7일(목) 전국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초등부 학생들을 만나보았다.

먼저 장난기 가득한 어린 참가대원들을 찾아갔다. 한참 예배를 준비하여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정한 지휘자 선생님의 지휘에 맞추어 찬양을 하는 아이들의 빛나는 눈빛에서 어린 천사들의 맑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참가부에서 금상을 타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나요?

: 아이들이 대부분 어려서부터 성가대를 계속해 왔어요.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함께 찬양 연습을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늘 강조를 하고 있지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라고요. 기도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최고의 찬양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찬송할 말씀에 잘 따르나요? 너무 떠들어서 힘드실 때도 있을텐데 ...

: 아직 어리고 아이들이라 당연히 떠들고 장난도 많이 치지요. 하지만 찬양을 시작하면 금방 쏙아해요. 토

전국 찬송경연 · 성경고사 대회 준비하는 어린이들



말씀으로, 찬송으로 자라는
종현의 꿈나무들

요일마다 모여서 연습하고 방학해서는 매일 모여 연습해요. 그래요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서 참 좋았어요.
방아라같이 입을 한껏 벌려 찬양하는 꼬마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고사실 한쪽 구석에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번 성경고사대회에서 특등상을 한 오라바와 입상을 한 김 송, 이영혜, 이사무엘 등 네 명의 어린이였다.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공과 공부책을 중심으로 하루에 3, 4과를 복습하며 엄마와 함께 공부하다가 주일에 이인숙 지도 선생님과 함께 종합적으로 공부를 한다. 성경 공부하면서 좋았던 부분을 묻자 라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다윗을, 송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편 23편을, 영혜는 잘못했지만 회개할 줄 알았던 욥을, 그리고 사무엘은 계시록을 통해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시도 요한을 배우며 되어 좋았다고 대답했다. 1월 7일 전국대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이인숙 선생님의 소망과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충언교회의 천국일꾼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이수경 기자)

중등부 제지예배

원칙과 정직을 지키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실하고 근면한 삶의 원칙 필요

김 동 양(강로, 중등부 부부장)

얼마전 IMF 시대 창업 정보 TV 프로그램 중에 일본의 조그마한 도사에서 방부제를 넣지 않고 무공해 천연재료만으로 만든 과자와 빵을 파는 제과점 경영으로 성공한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제과점 주인은 100% 무공해 천연재료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그대로 정직하게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되는 과자와 빵을 이곳에서 사기는 것이었다. 또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주문을 하여 배달을 할 뿐 아니라 구매회사를 찾아 다니며 판매를 하고 제인정을 경영하는 등 성직과 근면을 바탕으로 정직한 원칙을 지켜서 성공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원칙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지하철역이나 길거리에서 휴업을 하거나 가게를 닫는 행위, 아무곳에서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강연회나 공연장에서 핸드폰, 초콜릿 등을 물리는 행위, 학교에서 남의 도시락 반찬을 함부로 집어먹는 행위, 남의 학용품 함부로 가져가서 쓰지 않는 행위 등은 모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예습과 복습을 착실히 하는 것, 학생의 본

분을 지켜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윗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는 것, 자기 방 청소를 하는 것, 형제자매들 간에 우애하는 것 등은 모두가 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교회생활에도 원칙이 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주일 예배를 만드는 것,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것, 소리 내어 찬송을 부르며 가사를 생각하는 것, 믿는 자들끼리 복음을 전하는 것 등은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특히 충언교회에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 천국일꾼을 키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힘쓰고 있다.

사회생활에서도 원칙이 있다. 상거래상의 약속, 친구지간의 약속, 공동도덕 준수 등이 그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에는 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한다. 맘몰리 일해서 얻은 열매는 없었게 사용되며 그렇지 못한 것은 허랑방탕하게 쓰여지기 마련이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다. 따라서 중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며 성실하고 근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린다.

나의 고백

처음 만난 나의 주님

최 예 슬(중등3부)



어느날 기차단 친구로부터 터 전화를 받았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라는 주제의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난 정작을 받았다는 기쁜 맘으로 펜을 들었다. 그러나 사실 내가 언제 주님을 처음 만났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았다.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지난 날들의 기억들을 되살려 보았다. 순간 떠오른 것은 6학년 2학기때의 일이었다.

당시 난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다가 중간에 성이똥을 하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이 보다 늦게 들어간 만큼 나는 더욱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야 했다. 그래서 사실은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면서 성이똥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말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에

게 찾아오셨다. 어렴풋하지만 분명히 모습으로! 한창 운동을 하는 중이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한 번 비우고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마음으로 온 몸을 바쳐 운동을 해보라고 하셨다.

난 나의 마음을 비우고 애를 썼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데 계속 운동을 하던 중 난 무언가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던 그 순간 주님의 형상을 어렴풋하게나마 보았다고 한다 ... 한때, 바로 그때에 선생님은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한다. 운동이 아름다워졌다" 하고 칭찬을 해주셨다.

진정한 마음으로 온 몸을 바쳐 운동하는 순간!
...
선생님은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한다. 운동이 아름다워졌다" 하고 칭찬해 주셨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난 아마도 주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난 그런 마음으로 보다 더욱 진정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싶다.

1999년도 위원회 일꾼

기획위원회

실행위원: 최윤환, 안석현, 박성명, 정정길, 이부성, 허 오, 장준근, 전은배, 노영환, 최 규, 이소현, 구재환, 김세준, 박남재, 송두섭, 윤석진, 이병식, 이영환, 정영현, 조유선

출판위원: 강보은, 송환정, 이승철, 김한기

전산사위원: 차진동, 윤성철, 김단웅, 김한기, 김희수, 정태성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국장님, 내 뺨 알지요?”

박성명

(안수집사, 신평암장대 부대장, 14교구, KBS 책임리포터)

6년 전 쯤 일이다. 3장의 가까운 선배가 내게로 와 은근히 물었다. “박 PD, 무슨 뺨 가지고 있지?”

흔 형님 같은 인간미를 지닌 좋은 본인대, “저랑 교회하고 권면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라 가지 않겠냐는 그였다. “있지요?” 자신있는 어조로 내가 대답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참 기쁨 좋은 일이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세상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어디 크게 믿는 데가 있으니까 저러나 생각해 보았나.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선배에게 가끔 “김 국장님, 내 뺨 알지요?” 하며 위세를 부리곤 한다.

한번은 누군가 나에게 주일에 함께 운동을 나가자고 제의하는 것을 통해서 들었다 그 선배가 “박 부장은 일요일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라며 친절하게 나의 대변인 역할을 해 주었다. 고마운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참 기쁨 좋은 일이다.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으니 이 세상은 덤으로 사는 것이고 합격해 놓고 놀라지 않는 수월성 말이다. 아쉬운 것도 무서운 것도 없다. 사자 아니냐 대령도 겁날 게 없다. 하나님 뺨 믿고 너무 고만해질까봐 걱정이 될 뿐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충분하다.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한다.

나의 신앙생활과 문학

박철구

(안수집사, 천년2부 부장, 12교구, 전 문화관광부 서기관, 시조시인, 시예가, 수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최선 다하는 삶 살 것과



나는 경북 경산시 차인면 남신리 하천이 흐르는 시골에서 태어났다. 언제나 맑은 물이 흐르고 집 앞에는 버드나무 숲이 울창하고 파수원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나는 1년에 10번이 넘는 제사를 지내며 우상숭배와 조상신, 잡신을 섬기는 엄격한 유교 집안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중 대학교 2학년 때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 농사를 짓는 집안에 막대한 피해가 났고, 그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친구의 진도로 부흥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문과 2학년인 청년 대학생이었고, 처음 설교를 듣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 그것이 진리란 것이 가슴깊이 새겨졌다. 강력한 성경의 역사가 담겨있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때부터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하며 눈물로 회개를 하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기도를 마치고 일터에서 앉았던 자리는 항상 눈물로 흥건한 것이 있었다. 어떤 때는 뜨거운 불로, 어떤 때는 시원한 바람으로, 어떤 때는 감미로운 단비로 역사하

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경 말씀이 풀림이 달라서 밤을 새워가며 1주일만에 완독을 하고 나서는 항상 성경 속에서 살았다. 그 중에서도 시가적인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등은 문학을 전공하는 나에게는 큰 감명을 주었다. 타고난 성질이 다정다감하고 낙천적인데다가 태어나서 자라난 환경이 산과 들과 하천이었고 또한 착하고 이로운 인정이 많은 부모와 이웃을 속에서 자라

나서 동료와 동시, 시, 시조, 소설, 수필 등을 무척 좋아하고 많이 읽었다. 대학은 중퇴하고 군에 가서부터 틈틈이 나면 시와 시조를 지어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군인 생활의 대부분을 군중사관으로 있으면서 목민관 회회를 봉사하며 수많은 신앙 시를 짓게 되었다. 제대를 한 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1974년부터 충현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도한 학생들이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들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을 볼 때이다.

이제 회갑을 맞아 제 2의 인생을 출발하려고 한다. 96년도에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한국 시조시인협회, 전국 공무원 문인협회 등에서 문예창작 활동과 한국시작 협회에서 시예와 목화로서 남는 생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날까지 목민관 회교회에서 맡기시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제3회 메시아 연합 찬양을 마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차 신득(장로, 준비위원장)



찬양대원들과 성도들이

하나되어 이루어낸 감격의 찬양

3회제를 맞이하는 '98 충현 메시아 연합 찬양을 은혜 가운데 마치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98년 9월 6일 찬양위원회에서 가진 준비위원회의 모임을 시작으로 20일 성지 3회제 메시아 연합 찬양은 시작된 셈입니다. 9월 20일 개회예배와 첫 연수에 400명 가까운 대원들이 나라를찾을 각목 매미 그 열기와 관심을 잃을 수 있었고 연주회의 성공을 예견할 수 있었습니

다. 지휘를 맡은 장기범 집사님의 세밀한 연습 계획 하에 실시된 연습과정은 함께 참여한 준 지휘자들, 반주자들의 협조하에 파트별 연습도 충실하게 이루어졌 수 있었으며 각 찬양대 총무들의 업무 분담으로 실로 연합 찬양의 정신을 잘 살린 연주였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한 지휘자, 반주자, 총무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처음부터 엄격한 출석 관리 하에 매주 저녁 평균 400명 내외의 대원들이 총 15회에 걸친 연습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니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충분한 연습으로 감동적인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의 큰 특징은 메시아 찬 52곡 중 합창곡 21곡 전곡을 훌륭하게 연주했다는 점과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연주만으로 가졌다는 점입니다. 충현교회 성도들

의 교회음악에 대한 수준 높은 인식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 가까운 연주를 흔쾌히 허락하시고 연습 시간에 직접 들러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김성관 목사님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당일 연주의 좋은 음향과 녹음 및 녹화를 위해 수고하신 음향실, 제2회 메시아 연주를 직접 지휘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음향을 위해 음향실에서 직접 모니터링까지 해주신 조순호 집사님, 홍보를 인솔해 주신 수고해 주신 홍보실, 당일 분당 무대전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교회 관리과 직원들, 주일마다 식사를 마련해 주신 식당 봉사 전사님들 모두께 메시아 연주회 함께 수고하신 분들을 수 없는 숨은 일꾼들이니

다. 당일 연주회는 본 교회 교인들은 물론 멀리 지방에서까지 여러 교회에서 관심을 갖고 참석하였던 불신자들이 참여하여 4000명 가까운 많은 성도들이 분당 성전을 3층까지 가득 매워 대성황을 이룬 데 대하여 모든 찬양대의 연주자들은 큰 격려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것은 당일 성도들에게 생소한 악기였던 귀한 악기인 첼비란을 보유하고 있는 임영선 전성님이 무료로 제공, 연주까지 해주셔서 첼비란의 음악적 표현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메시아의 위대한 합창에 큰 박수로 화답한 모든 성도들의 마지막 감격의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마음이 녹아지는 은총

이명희(집사, 3교구, 만도린연주단 대원)



주님의 진두지휘 하심에 감사

영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양 부를러

부족하고 미련한 내가 과연 메시아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한 주일 저녁 연습. 연습에 참여할수록 감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녹이며 내 자아가 깨어났습니다. 내 지식, 내 입술로만 찬양하리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주님이 함께하시어 진두 지휘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 시간 연습에 참여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소리가 연합하여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이 이루어짐에 감 베풀며 모든 대원이 육신이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진실되고 정성스런 모습에 감격하고 시간 시간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졌고 감사밖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의 추한 입술로 1시간 50분이라는 긴 시간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찬양하게 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드린 대원들이나 함께 지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찬양이 되었으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찬양드린 수 있도록 위해서 어려움으로 준비해 주신 교회와 여러 임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탐방 - 사무국

무심코 살다가 한순간에 생가해 볼 일이다. 새벽기를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세상이 잠든 이른 시간에 누가 성령의 불을 밝히고 실재를 따듯하게 덮어 놓았는가? 또 누가 화강실은 이토록 깨끗하게 닦았을까?... 누구인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들의 쾌적한 예배를 위해 교회의 구석구석을 자상한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있구나. 도대체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너무나 편리하고 안락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 이러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교회 생활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는 부서가 사무국이다.

행정위원회 소속 사무국은 총무과, 경리과, 음영과, 관리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 가족들은 총현의 성도들이 5대 목표를 달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총체적으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냉난방은 물론 형광등이 나가는 불편할 때나 물품이 필요할 때 심지어 못 하나 박는 일에도 언제나 사무국을 찾는다. 사무국에서는 만능해결사처럼 모든 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해 준다. 사무국 가족들의 일손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우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없이 교회 생활한다.

사무국의 하루는 언제나 예배로 시작된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인도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날 그날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다. 사무국의 주재전송은 347장이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피로한 일이 많으나 주께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라는 찬송을 부르며 청지기의 소명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한다. 사실 많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



어떠한 상황도 사명으로 승화시켜며 주님과 성도들을 섬겨나가는 이들

은 성도들의 필요를 원활하게 충족시켜 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필요를 고려하다 보면 때로 성도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때

도 있다. 그래서 힘이 때때로 있지만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오히려 사명으로 승화시키고 더 겸손히 주를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한다.

사무국 가족들은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감사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사무국을 통하면 안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요구가 관철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성도들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장소와 시설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하루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냉난방, 문의 개폐, 마더즈 준비, 물품 공급, 행사가 끝난 뒤의 청소 등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다. 갑자기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청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물품과 시설은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한다.

사무국 가족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직장으로 생각하고 와서 일했으나 오랫동안 일을 하다보니 이곳을 우연히 오게 된 직장인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주어진 일터였다는 교백을 한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통치된 사무국 가족들은 각 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도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행정위원회를 총괄하는 김재명 장로님은 목사님 외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 곳'...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소나'라고 시편 84편을 낭송하신다. 그렇다. 어찌된 이분들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날이 세번 주의 궁정으로 달려나오 주의를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리라. 주의 궁정에 거머져 언제나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무국 가족들에게 우리들은 그동안 늘 잊고 살았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정현희 기자)

지체들 소식

영아부 새해 첫 주일 새 친구들, 반가워요!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해의 부족했던 것과 아쉬웠던 일들을 뒤돌아 보며 올해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길 기도한다. 예수님의 말씀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먹이랴...'를 묵상하자 우리 하나님께 주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며 영아부 아이들을 맑고 푸르게 아름답게 자라도록 도와 주는 교사의 자리에 있기를 기도한다. 또한 새해 첫 주일 12명의 새 친구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송혜정 통신)

유치부 '시몬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작은 입술을 통해 힘있는 찬송이 첫주부터 유치부생은 더욱 힘있게 할 주일이었습니다. 유아예배 때 새로 올라온 어린 꽃반 친구들, 열매반이 되어서 조금의 것사건 열매반 친구들,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 모두가 새로운 한해의 첫 주일을 열매반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올 한해에도 주의 어린이로 지체롭게 예수님 닮으며 성장하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세요. 1월 10일(주일)에는 1부, 2부 예배 후에 찬양도 오디션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봉사하고 싶은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해 주세요. (조인혜 통신)

유년부 새해에도 예수님 사랑하며 전하는 우리들이 됩시다!

유년부에서 첫 예배가 교육관 314호에서 10시 30분에 있었습니다. 바쁜 시간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많았으나, 자기 반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예배가 시작되자 모두 자처하여 예배를 드렸으며, 분반공부 시간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이름도 알고 우리들 공부할 교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유년부 1년 신장인 2학년 친구들은 이직할 자제로 1학년 후배를 맞이했고 유치부에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은 들며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99년도에 예수님 사랑하며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정지훈 통신)

중등1부 더욱 헌신 다짐하는 선생님들

오늘부터 선생님들의 공과 준비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열현일 전도사들의 지도 아래 다음주의 가르칠 내용을 각과별로 토론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있는 분반공부 시간이 될까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입을 열어 기도드리고 찬송부르고,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고 지키게 하는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도모이 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영희 통신)

중등2부 새 교과는 '말씀·믿음·삶'

지금까지와는 달리 새로 개편된 교재로 분반공부를 하였습니다. 새 교과는 '말씀·믿음·삶'이라는 개관공과책이며, 이 책을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를 쓰셨다고 한다. 새 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제 신장인도 새 선생, 책도 새 책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 주년을 잘 섬기는 중등2부가 되자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서로의 손가락을 걸어 흔들면서 다짐했다. (심은숙 통신)

청년2부 새료원인 청년2부 30대 모임

99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장로님의 지침에 따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봉사 등 30대들의 신앙과 생활의 연계성을 위해 세움과 조직들을 개편하고 영적 양적 부흥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강화시켰다. 제자훈련이 1월 첫

째주부터 새롭게 시작되었으며 서울역 전도, 중앙병원 전도, 수요일 저녁 예배 주 전체 기도회 모임이 강화되었고 각 부서별 기도회도 동 활발한 모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신임반도 교사와 조장들의 인원 수를 내폭 늘이고 새가족 등록실과 새가족부에 조장들을 파견한다. 특히 탁아반 (교육관 408호)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30대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백영자 통신)

장년3부

신앙 예수님 기다리는 신부들로 가득차길 98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은 풍성했다. 1년 동안 은혜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도의 열매와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귀기울이고 영의 양식으로 받아 들였는지 자신들을 돌아보며 상을 받는 모두의 얼굴에는 찬미와 감사로 가득 차다. 주일마다 장년부 집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열매는 살자고 99년에는 제림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신랑들이 순결하게 다듬어져 가리라. 어찌되고 어찌된 비결이 같은 눈발들 가진 신부들이 교육관 307호를 가득히 매워져 소리로 이 신랑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기도드린다. (김미자 통신)

영아교육부 신교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영아교육부에서는 신교의 비전을 가진 어린이들을 양육하고자 힘쓰고 있으며, 유·초등부에서 16일에 '천사의 집'을 방문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예배시간은 9시로 변함없이 유·초등부 영아예배는 12시 30분부터, 중·고·대·청년 연합 1층 강나눔에서 10시 30분부터 시작하여 성가나눔에서 시작한다. 신교의 비전을 품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 (박진영 통신)

1교구

어둠 헤치고 밝은 새해

'복있는 사람이 되자'를 금년 표어로 삼은 우리 교회는 첫 교구모임에서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되어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했다. 또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여호수아를 본받아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염원하였다. (임태홍 통신)

14교구

신앙 성장 위해 중보기도기로 99년 첫 주일 14교구의 일꾼들은 성찬 식에 참여한 후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다함께 교구의 동계농회는 전도 계획과 한자들을 위해 기도회를 드리고 특별히 각자의 금년 기도제목과 신앙생활의 목표를 기록하여 교역부에 드리고 1년 동안 신앙 성장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하며 각자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시 시작을 하는 주님! 연애를 가시 기도의 응답과 우리들의 신앙성장이 결과로 나타내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애나 통신)

15교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새해 맞아 인생들에게 절기와 시와 날과 년한을 정하여 주시고 나의 계수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와 구분이 없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에 하나님의 시기를 잊을 것을 경계한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새로운 헌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때임을 감사한다. 새해에 15교구 식구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마음에서 다짐하고 삶의 방향을 정한 귀한 시간을 보냈다. (변숙경 통신)

교 육 소 식

★ 알 림

1. 회계실무교육 실시 / 17일(다움주요) 1500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합니다.
- ★ 모 임
1. 장로 회오세배기도회 / 12일(목)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 및 협도세배기도회 / 11일(금)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오늘 15:00-16:30, 감리회를
4. 신도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신교관 405호
5.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사부구 회의실
6. 기획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00, 신교관 301호
7.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신교관 404호
8. 설립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4일(목) 새벽기도회 후, 설립인전도회실
9. 설립인전도회 일목위원회 / 12일(목) 18:30, 세양가든
10. 화합전도회 월례회 / 오늘 12:30, 본당 지하 110호
11. 창건전도회 월례회 / 오늘 15:00, 안수홀
12. 96세대이웃연합인정 행사 / 16일(토) 19:00, 찬양위원회(신양위원회, 화합, 화평위원회, 화인)
13. 각 찬양단 - 오케스트라 합주 회의 / 오늘 12:00, 찬양위원회실
14. 관서회 제2기차 월례회 / 13일(수) 1부예배 후, 사부구실

★ 남녀전도회

1. 바 울 1 / 16일(토) 18:30, 세양가든(563-1334)
2. 바 울 7 / 17일(다움주요) 교육포럼 후, 복지관 지하1층
3. 바 울 10 / 16일(토) 18:00, 부전장소불가산(097-4244)
4. 바 울 17 / 16일(토) 18:00, 본당 헤이리가든(0342-706-2244)
5. 베드로 1 / 16일(토) 19:00, 감리회(부부 동반)
6. 베드로 2 / 16일(토) 17:30, 안수홀
7. 베드로 12 / 16일(토) 17:00, 강창익 집사대
8. 베드로 17 / 16일(토) 18:00, 유현동 집사대(0342-704-4266)
- 한 해 5일(토) 19:00, 탁아부실
- 한 해 1 / 오늘 교육포럼 후, 탁아부실
1. 한 해 2 / 오늘 교육포럼 후, 복지관 지하2층
2. 한 해 4 / 오늘 교육포럼 후, 교육포럼장소
3. 한 해 5 / 오늘 교육포럼 후, 교육관 407호
4. 한 해 6 / 오늘 교육포럼 후, 호신나루
5. 한 해 9 / 오늘 교육포럼 후, 교육관 414호
6. 한 해 10 / 오늘 교육포럼 후, 새가족부서실
7. 한 해 11 / 오늘 교육포럼 후, 교육관 307호
8. 한 해 14 / 오늘 교육포럼 후, 안수홀
9. 한 해 16 / 오늘 교육포럼 후, 교육포럼장소

20. 예수다 1 / 17일(다움주요) 교육포럼 후, 탁아부실
21. 예수다 4 / 12일(목) 11:00, 안수홀
22. 예수다 6 / 12일(목) 11:00, 호수부대
23. 예수다 8 / 16일(토) 12:00, 유현동 권사대(2292-6260)
24. 예수다 9 / 12일(목) 12:00, 안수찬양대(494-8879)
25. 루디아 9 / 12일(목) 11:00, 이영숙 집사대(091-3362)
26. 루디아 15 / 13일(수) 1부예배 후, 안수홀
27. 루디아 1 / 12일(목) 10:30, 사랑방
28. 루디아 4 / 12일(목) 10:30, 능부림(예수의 찬양 대)
29. 루디아 7 / 12일(목) 10:30, 교회식당
30. 루디아 9 / 19일(토) 11:00, 오랑은 회당
31. 루디아 10 / 12일(목) 10:30, 박순계 집사대(900-0134)
32. 루디아 13 / 12일(목) 11:00, 신양회 집사대(032-811-5800)
33. 루디아 14 / 12일(목) 10:00, 한현진 집사대(605-7591)
34. 루디아 15 / 11일(토) 11:00, 삼도준비(삼도대년근자)
35. 루디아 17 / 12일(목) 10:30, 봉성동 집사대(0342-707-1330)

★ 결 혼

1. 유지훈(관) 유진규 집사, 김종수 집사의 아들, 7교구과 허은주 양녀(수영생, 카톨릭대학의 딸) / 16일 16:00(토) 13:00, 감리회를

★ 별 세

1. 죽장신 성도(유정순 집사 모친, 김명옥 성도 장모, 13교구 안수구역) / 12월 29일 밤세, 51일 장례
2. 이태원 성도(장성숙 성도 남편, 5교구 개조초대구역) / 1월 3일 밤세, 5일 장례
3. 안현준(예)장성숙 성도 모친, 김정은 집사 시모, 14교구 목구구역 / 1월 3일 밤세, 5일 장례
4. 윤복남 성도(이영준 집사 모친, 6교구 송파3구역) / 1월 6일 밤세, 8일 장례

사 진 찍 으 세 요

- 99년도 신입 남녀 세리집사들께서는 제직사진촬영에 실된 사진을 1월 중으로 찍으시기 바랍니다.
- 찍는 곳 : 홍보실(신교관 408호)
 - 찍는 때 :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5	서일원	2	청년2부	박운옥(2)	49	윤봉식	14	청년2부		63	김재영	19	청년1부		64	김진제	19	청년2부	
36	박현숙	3	베드로	50	박현숙	14	청년2부			65	박용옥	11	한 나		66	김기영	6	루디아	지은화(19)
37	김 신 5	대학부	최금숙(5)	51	김종근	14	고등부		나광은(14)	67	지명근	6	고등부		68	박영숙	11	소망부	지은화(19)
38	전영숙	6	한 나	이혜숙(6)	52	조종규	16	청년1부		69	정인호	11	베드로		70	조재화	11	루디아	
39	맹우승	6	바 울	이혜숙(6)	53	홍이리	19	고등부		71	문봉희	9	청년2부		72	이은호	9	청년2부	
40	이연진	6	루디아		54	정진아	19	고등부	최양숙(2)	73	고희선	16	청년2부		74	송지영	19	대학부	변영현(6)
41	제성연	19	청년2부		55	김기영	19	대학부		75	최지형	19	대학부		76	함종민	19	대학부	변영현(6)
42	노승연	6	청년1부	조수연(10)	56	안문경	19	대학부											
43	김영태	7	청년2부		57	박경민	19	대학부											
44	최성남	8	에스디	최창자(8)	58	한수연	19	대학부	백남제(7)										
45	안태호	11	청년2부	강미경(19)	59	황승현	19	청년1부	윤숙자(4)										
46	안 신 12	청년2부		60	윤보경	19	청년1부												
47	박운옥	12	청년2부		61	문지현	19	청년1부											
48	김문선	13	바 울	윤부기(13)	62	공창직	19	청년1부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수석 못지 않은 차석

2년 전의 일이다. 주회 엄마를 구역장으로 세우려고 애를 많이 썼으나 본인은 정작 아직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없노라며 거절하기를 여러번.

끊임없는 기도과 설교 끝에 구역장을 맡은 주회 엄마가 얼마나 구역장의 직책을 잘 감당했는지, 풍요 속에 안락이라 했던가. 길로든지 아무 문에 들어 보이는 동네에서 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려운 구역식구들의 가정에 주식이 나 크리스마스 때면 사제들 턱이 파열이며 고기를 장만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에서 주는 사랑편을 차려 먹고 다니며 집집을 방문하는 정성을 보인던 모습이라 아름다웠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그 딸에게 귀한 축복을 내리셨다.

얼마 전 수능시험 합격자 발표날 혹시 주회가 전국 수석을 차지하였는데 남 친구에게 수석자리를 빼앗겼고 차석을 차지했다. 그런데 다른 아이를 같은으로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느냐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봐 자랑조차 하지 않는 그 아이의 겸손이 참으로 돋보였다. 오

리려 만전절리 반 천구를 세워 주며 그에게 전도하자 하며 새해부터는 대학부에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하늘나라의 보람이 충만한 자랑거리이다.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지만 무슨 과목을 전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드리고 이웃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일까 기도 끝에 의대를 지원했었다는 참으로 잘하였다는 생각이다. 의술로 선교하고 복음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기를 바라며 자신의 머리를 미고 파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며, 이 기쁜 마음 끝까지 잘 간직하여 변치 말기를 바란다. 끝으로 교회와 나라에 기뻐서 참여시켜주시기를 바라기에 기도하였다.

구역식구 중 이뿐이 함께 합격의 영광을 알게 된 사랑하는 구역 가족들의 가정뿐 아니라 계속 입시 전쟁의 와중에서 분투하고 있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격려하시고 평강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4교구 통신)

1월 17일 예배 전 찬양곡 및 연주자

★ 2부예배
출현남성중창단
(찬양곡목)

- 기뻐하며 감배하자(찬 13장)
-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찬 32장)
- 목마른 자들이

★ 3부예배
한울남성중창단
(찬양곡목)

-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들
- 이 세상의 친구들(찬 449장)
- 능하신 주의 손
- 그는 여호와

★ 4부예배
한울남성중창단
(찬양곡목)

-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들
- 이 세상의 친구들(찬 449장)
- 능하신 주의 손
- 그는 여호와

★ 5부예배
소프라노 구자은, 김서영
(배경음악대 솔로이스트)
(찬양곡목)

- 예수나 우리를 부르는 소리
- 시편 51권
- 정결하게 하는 샘이
- 내 깊은 눈 안에

총회 증보의 창

① 새롭게 허락하신 1999년 한해 동안 우리 교회를 신령한 애매를 드리는 교회, 천국인공을 양성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소서.

② 감정인 원로목사와 감성관 위임목사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끈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③ 1999년 1월 13일~14일에 있을 정기총회를 통해 새 연의 일꾼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④ 1월 16일부터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교회학교 겨울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심령이 새 힘을 얻어 한해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소서.

⑤ 1월 11-15일에 춘천소년원에서 실시되는 계절학교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⑥ 1999년 2월 3일~6일까지 있을 제2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더욱 빛나는 영혼의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⑦ 추운 날씨로 인해 더욱 고통당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소서.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훈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환 김동석

김원수 전현준 김재현 이승수 김경진

정현민 조준환 조철수 김동화 차복준

김남태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송학

정병성 박노철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대 박형용 노봉민

■ 선교사

이종교 안석열 김영래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이진도사

정현희 현정남 정영자 임태주 김경자

박창중 조재민 송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순 한영문

박복희 김영숙 김복희 최영관 김현식

■ 교집전도사

박익진

■ 교육전도사

박익진 염현일 한승일 김경기 송현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이우환 김병수

한재관 김윤식 김일숙

■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원신전도사

유병석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하요셉